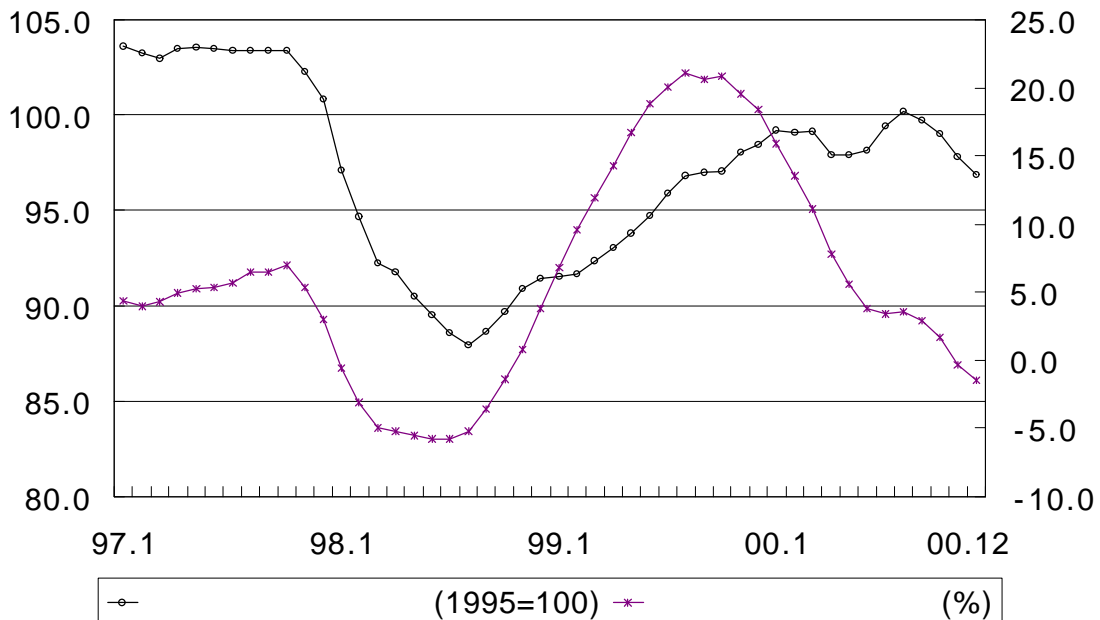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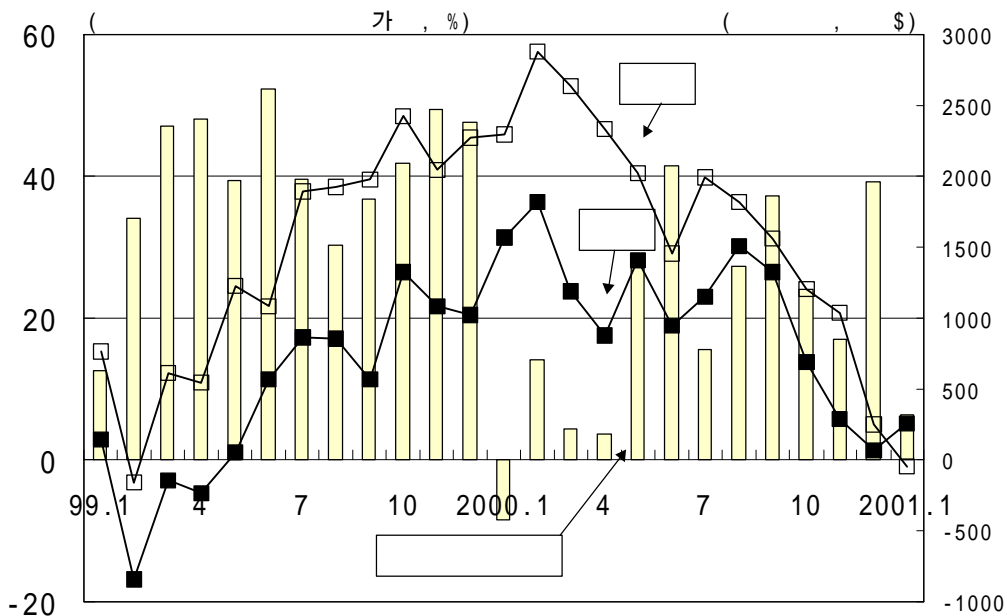
산업 활동

- (내수 둔화) 12월 중 생산, 소비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, 특히 설비투자는 1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임
 - (생산) 섬유 제품, 조립금속, 자동차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, 전년 동월 대비 4.7%로 그 증가세가 둔화됨. 이와 함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.7%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
 - (도소매 판매)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.2%로 크게 둔화됨
 - (투자) 통신장비와 기타운송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, 12월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.1% 감소했으며, 건설투자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
- 경기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으며,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비해 0.9%p 감소하였고,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또한 전월보다 0.9% 감소하여. 내수 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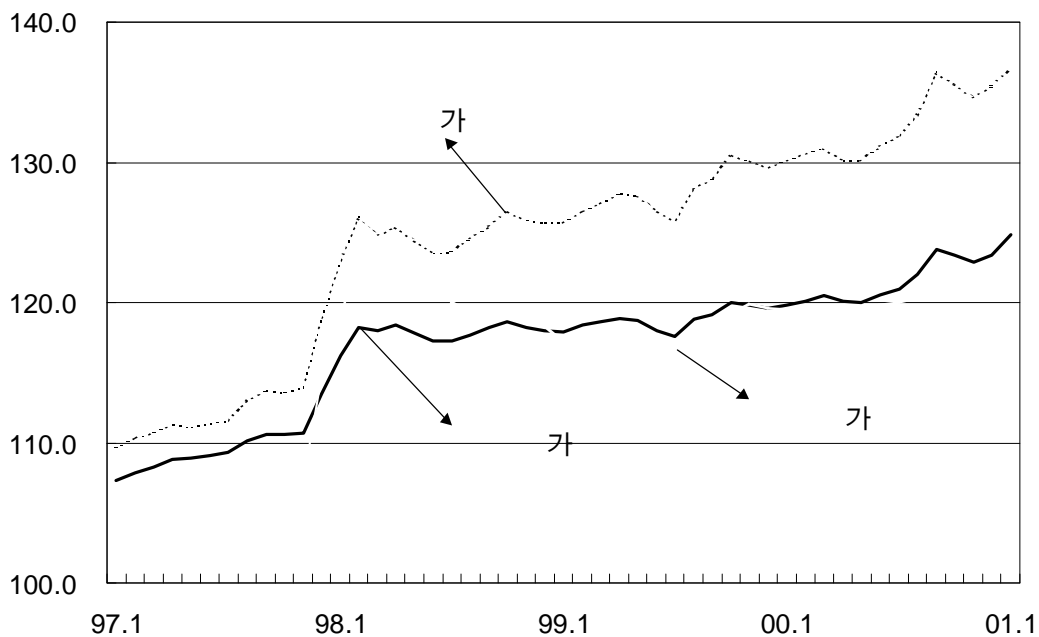
대외 거래

- (무역수지) 2001년 1월 무역수지가 3억 2,000만 달러의 흑자로 나타남
- (수출) 전년 동기 대비 5.2% 증가한 127억 9,000만 달러로 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음
 - 설연휴로 인한 수출 감소요인은 약 9억 달러로 추정되는데,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수출 증가율은 8% 수준에 이를 수 있었음. 수출은 지난해 11월(5.6% 증가)과 12월(1.4%)의 부진에서 다소 벗어난 상황임
- (수입) 작년 1월보다 1.0% 감소한 124억 7,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지난 99년 2월(-3.2%)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음
 -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경기 하강과 설 연휴로 수입수요가 크



물가

- (동향) 2000년 1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과 의보수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월 대비 1.13% 상승(전년 동월 대비 4.28% 상승)
 - 특히 설 수요와 기상 악화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2.8%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를 0.4%p 상승시켰음. 의보수가 역시 9.9%나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.32%p 상승시켰음
 - 한편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9%, 생산자물가지수는 0.5% 상승함
- (특징 및 전망) 1월 중 물가 급등은 특수한 요인들에 의한 것이었으며, 향후 안정을 보인 후 2001년 연간으로는 3.5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-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경기 조절책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 연간 물가는 4%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것임
 - 2001년에 3%대의 물가상승과 5%대의 경제성장률이 예견되는 바, 스태그플레이션



금융시장

- (원/달러 환율)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역외매수세 유입, 수입업체들의 다양한 달러 수요, 엔화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냄
 - 1월 중순 경에는 달러 강세 및 엔화 약세로 인해 환율이 한때 달러당 1,300원에 근접했으나, 주식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환율도 안정세를 나타냄
 - 향후 1/4분기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함께, 엔화 절하 추세 지속으로 인해 원화환율은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
- (금리)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기관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국고채(3년)를 위시한 지표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됨
 - 시중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고는 있으나,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로 인한 우량채권 매수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임
 - 美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금리 하락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
- (주가)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
 - 미국 금리 인하로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됨. 이후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큰 폭의 지수 상승이 유발됨
 - 그러나 경제 기초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시장 위험이 상존하므로, 1/4분기에는 현재의 상승세보다는 단기 등락이 전망됨

